

광주시,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 선점 나선다

시·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리콘밸리 선진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국내기업간 합작 투자 유도

광주시가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시장 선점에 나선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3층 K스튜디오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기회'를 주제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실리콘밸리 선진기술 이전, 합작회사 투자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용섭 시장과 김신배 POSCO 사외이사, 문국현·오사마 하사나인 실리콘밸리비즈니스 포럼 공동회장,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전망과 새로운 공급망 기회(알리 이자디 블룸버그 NEF 아태 지역 리서치 총괄) ▲한국 배터리 산업 현황과 키플레이어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김유탁 한국전지산업협회 연구기획팀장) ▲시나노데 플랫폼(The SINANODE platform·빈센트 플루니지 OneD Battery Sciences 대표)의 발전, 패넌로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문국현 공동회장은 "미국경제의 상징이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광주와의 만남은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광주에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세상에 소개하고, 한국에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에는 실리콘밸리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과 국내 관심기업 등이 참여하는 B

2B 비즈니스 미팅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국내기업간 합작 투자를 성사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DNA, 시대를 선도하는 소명의식과

강한 도전정신이 실리콘밸리 비즈니스포럼과 손을 잡으면 세계적인 배터리 경쟁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우리시와 실리콘밸리간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활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전과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K스튜디오에서 광주시와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최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광주시는 11일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이 연말까지 전문 인력 양성, 프랜차이즈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시행한다.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가맹본부,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개 업체에 1천만원씩 한도에서 지원한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부가가치 증대,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화정동으로 청사 이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새로운 사무실로 옮겨 업무에 들어갔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종합건설본부는 시청 12~13층에 있던 사무실을 서구 화정동 청사(옛 보건환경연구원)로 이전을 최근 마쳤다. 새 청사에서 3부, 9과, 110여명이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 하천, 공공 건축물, 도로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순찰·복구반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6월 15일까지 봄철 농촌일손돕기 지원

전남도는 모내기,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를 봄철 농촌일손돕기 중점 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영농작업이 어려운 홀로 사는 농가와 고령·장애인 농가 등이다. 기계화가 어려운 양파·마늘·매실 수확 작업과 과실 수거, 봉지 씌우기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분청과 사업소, 사·군 모든 공직자가 1회 이상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상시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 일손돕기를 위한 이동과 농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군부대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 이들 기관도 동참하기로 했다.

농축산식품국 직원 53명은 11일 무안 정계면 남성리 한 농가의 양파 수확을 도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귀농 75농가 1억 이상 고소득

축산농가 28호·식량 14호 장성 11호 최다, 해남·순천 순

전남에 귀농해 연소득 1억원 이상을 올린 농가가 75농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준 농가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귀농인 중 규모별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농가가 45농가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60%를 차지했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23농가로 30%, 5억원 이상은 7농가로 10%를 차지했다.

경영 형태별로 1억 원 이상은 축산농가가 28호로 3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식량 14호(19%), 과수 12호(16%)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장성군이 11호(14.6%)로 가장 많았고, 해남군 10호, 순천시 9호, 고흥군 8호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50대가 28호(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이 24호(32%), 49세 이하 청년농도 23호(31%)나 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2018년 57호, 2019년 69호, 2020년 75호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전남도는 귀농인의 고소득 농가 증가 원인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실장은 "고소득 귀농인의 성공사례를 예비 귀농인에게 집중 홍보하는 한편, 도시민이 전남으로 귀농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연도별 귀농인 가구는 2015년 1869호, 2016년 1923호, 2017년 1925호, 2018년 2026호, 2019년 2014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코로나 신속 차단해 경제 살리자"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11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물 쉴 틈 없이 추진,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차단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노력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역감염 확산 차단 관건은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안타깝게도 집단발생이 고층, 여수에서 발생했고, 고층이 주춤한 상태지만 순천에서 확산하고 있어 여수와 순천에 차단방역 활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 및 이동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 6인까지 가능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기간을 2주 연장했는데,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것과 관련 "그동안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도민 시책을 발굴해온 결과 좋은 정책이 줄줄이 나온 결과"라며 "평소에 도민을 최우

선으로 하는 실질적 시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수소경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경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의 '인공 에너지섬(Energy Island)' 계획을 거울삼아 전남이 선점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과 섬을 연계해 그린수소 생산·저장 시설을 구축, 그린수소의 중심지로 육성하자"고 말했다.

특히 "2022년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수소 관련 학과와 연계해 R&D 촉진 및 연관산업 유치 등을 추진하는 대단위 수소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정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하고, 대선공약에도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가 이날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국가기념일을 맞아 기념사를 발표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동학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동학농민 선열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정기예금(100억한도)

12개월 **1.85%**
18개월 **1.95%**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2020년 출자금

3.0% 배당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총장지점 223-7217